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런닝맨 Briefing



SFA반도체
(036540.KQ)

22년 시작 (기대대로) 좋았다

| | | | | | | | |
|------|----------|------|-------------|------|--------|------|------------------------|
| 시가총액 | 10,739억원 | 투자의견 | 중장기주가상승(유지) | 목표주가 | 9,460원 | 현재주가 | 6,530원 (상승여력+44.9%) |
|------|----------|------|-------------|------|--------|------|------------------------|

동사는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동종업계 "하나마이크론+ 네패스+ 테스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업체이다 (메모리 & 비메모리, 패키징 & 테스트). 핵심 고객은 삼성전자로 매출 비중이 77% 정도이다. 22년 시작이 좋다고 지난 3월 필자 리포트에서 언급했다. **꾸준한 서버 DRAM용 후공정서비스의 성장과** 21년 4분기부터 급성장세인 해외 Audio Codec 등 비메모리 비즈니스 증가 효과가 통상비수기인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1분기 매출은 QoQ 소폭 하락에** (vs. 21년 4분기 매출 1811억) 그칠 것으로 보았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매출은 1743억 (YoY +24%, QoQ -4%),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225억 (OPM +12.9%, YoY +57%, QoQ +37%) 이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한 것이다.** 비록 모바일 DRAM이 약하지만 동사의 강점인 서버 강세와 범핑 분야의 이익 개선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은 QoQ 최소한 10%~20% 까지 가능성 열어둔다. 2022년 Capex는 500~600억원으로 (범핑으로만 22년 이미 150억 투자+추가 예상, 비메모리 제품군 확대위한 인프라 투자 등) 예년 대비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이 투자의 실제 매출 기여 시점은** 장비 입고/고객의 최종 주문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매크로의 불안정 변수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의 변동성시 메모리사업 후공정 아웃소싱 규모의 변동성도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기적 시각에 초점을 (22년 실적 까지만) 맞추면 주가 업사이드의 실현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궤도에 진입한 상태는 맞고 23년을 바라보는 시점 형성시기 (23년 실적기대치 반영)에는 달라진 주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추후 업데이트는 5월 말~6월 초 IR 미팅 후 예정이다.

Financial Data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순이익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 PER (배) | EV/EBITDA (배) | PBR (배) | ROE (%) |
|-------|--------------|------|------|------|------------|------------|--------|------------|------------------|------------|------------|
| 2020 | 573.1 | 34.3 | 20.9 | 17.6 | 103 | -29.2 | 80.7 | 56.1 | 12.9 | 2.9 | 5.2 |
| 2021 | 641.1 | 66.5 | 58.0 | 55.1 | 335 | 226.1 | 115.4 | 21.3 | 10.3 | 3.0 | 15.2 |
| 2022F | 773.5 | 93.2 | 93.8 | 75.9 | 459 | 37 | 138.0 | 14.2 | 7.4 | 2.2 | 17.2 |

자료 : SFA반도체, 컨센서스, K-IFRS 연결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 구분 |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 투자등급 |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 투자의견 비율 | 비고 |
|------------------------|----------------------------------|--------------------|-------------------|------------|---|
| Sector (업종) | 시가총액 대비 | Overweight(비중확대) | | | |
| | 업종 비중 기준 | Neutral (중립) | | | |
| | 투자등급 3 단계 | Underweight (비중축소) | | | |
| Company (기업) | 투자등급 4 단계 | 단기 주가 상승 | | 3.8% |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
| | | 중장기 주가 상승 | | 53.0% | |
| | | 단기 주가 하락 | | 0.3% | |
| | | 단기 주가 박스권 | | 4.8% | |
| | | Attention | | 38.1% | |
| | | 합계 | | 100.0% | |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